

고

고난도 국어 기출모음집

21 6 ~ 23 6

40%

中 40% 가



: P.3~29

: P.30~77

: P.78 ()

고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 홀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새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께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랴 <제15곡>

최 행수 쭉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달쪼م 개쪼ム 올며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 수졸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현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
 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시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어졌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시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저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짝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슬 취한 늑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떨어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A] 어떤 때는 방게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게란 놈들도 열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내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B]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체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藝)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소식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
 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포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립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넓은 다리'는 '주가'와 '온 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21 6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지는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야’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곱팡이가 나도록 알아어지지 않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열리어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 *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 *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A]
 배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28.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2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쩡쩡 울리던 옛날’과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너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21 9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나

[A]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섧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어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헨이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섧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뗏소리 섧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일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B]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옮겨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C]

- 작자 미상 -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입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입과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쭈’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21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겨진 하늘은 목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좁이 쳐.

[A]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찬 두 뺨 위에 모래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뱃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꿈처럼 어린 늬이 북극을 꿈꾸는데
 늬은이는 늬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털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닷과 저승의 밤에
 아이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은갓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기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 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초**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뻗뻗이 늘어진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옥,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옥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22.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뫼’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좁이 처’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 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봄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잡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뒀에 엮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흘때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데
술 익자 채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피에는 새 다 굶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
뉘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켜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건마는

㉠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윤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이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닫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간장이 다 썩어 닳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青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해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닳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조우인, 「자도사」 -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복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또르 똑또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24.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5.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녹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귀'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입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니'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26.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뉘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입의 터진 옷'을 깃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끈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22년 6월 시행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잡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켜 내면서

“겨우 둔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핵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둔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줌 쳐 보라……. 증증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낼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 광복 여섯 필
- 고무신 스물세 켤레
- [B] 지카다비 여덟 켤레
- 빨랫비누 세 케작
- 양말 오십 타
- 정중 열세 병
-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뺏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토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톱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베똥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네,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잡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미군 헌병.

28.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22년 6월 시행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력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이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당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어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넛**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진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우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케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건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을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지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가)는 위로하는 어조로, (나)는 충고하는 어조로 지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3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고, ㉡은 '아이들'에게 이탈이 금지된 공간이다.
-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그'의 요청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 낯선 공간이고, ㉡은 '아이들'이 개성을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 ④ ㉠은 '향'의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공간이고, ㉡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노동만 남은 공간이다.
- ⑤ ㉠은 '향'과 화자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아이들'과 '그'의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몰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흉넛'을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몰들어 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추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추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 있었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의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돌으면 밥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밥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한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라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달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뽀뽀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죄꼬만 날개**가 돌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뱃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흙.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꿇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 레닌: 러시아의 혁명가.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깃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22 9 (8.31)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A]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메고 벼를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갯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 아이야 닳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 자린은순: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 회황천지: 북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 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께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22

40%

2023 6

23.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 ② ㉡은 화자가 돌이켜 보는 삶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다.
- ③ ㉢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다.
- ④ ㉣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 ⑤ ㉣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한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19수>까지의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는 <제8수>에서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
- ③ <제8수>의 ‘이것을 즐기나니’에는 <제1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⑤ <제17수>에서 ‘아무 텐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제19수>에서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25.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겨릅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②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서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글쓴이는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④ 글쓴이는 취서사에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⑤ 글쓴이는 겨릅을 구하려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가)에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나)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난다. 한편 (나)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를 보인다.

- ① (가)의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나)의 ‘궁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엿볼 수 있군.
- ③ (가)의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말도 없다’에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을, (나)의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의 ‘도무지 할 일 없어’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밝아 대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가)의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의 ‘의를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찰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이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일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 십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십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백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씩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십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중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중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향 소리를 들었다.

(중략)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헛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독여서 병상을 돌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활듯이 돌려 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 호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명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견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 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2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③ ㉢는 용팔이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④ ㉤는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는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29.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용팔이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멧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 ④ ㉠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 ⑤ ㉠은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무성격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 ① 산관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관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23 6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년(萬年)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뱀이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일월(日月)의 눈부신 모습
입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입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
숫아 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九天)에 사모침을 입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솟아 되는 날까지
그 솟아 되살아 다시 재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 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 조지훈, 「맹세」 -

(나)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의 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내 언어의 뜰에서 굴러라.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봄은 자유다. 자 봐라,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잎 달고 싶은 놈 잎 달고, 반짝이고 싶은 놈은 반짝이고, 아지랑이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었다.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옳으면 자,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나라.

- 오규원, 「봄」 -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1연과 6연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4연과 9연에서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 ③ (나)는 반복적인 표현을 제시하면서 쉽표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나)는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낸다.
- ⑤ (가)는 같은 시구를 5연, 10연의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나)는 1연 끝 문장의 시어를 2연 첫 문장으로 연결하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32.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에게 자랑스레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을 포함한다.
- ②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 준 희생과 설움을 담고 있다.
- ③ 대나무에 서린 입의 뜻을 잊으려는 화자를 질책한다.
- ④ 피리의 흐느낌에 호응하여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한다.
- ⑤ 구천에 사무친 원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33. 다음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가)는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는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화자의 시선이 두드러짐에 비해, (나)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차이를 보여요. 이 차이가 주변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나 바람을 실현하는 방식에 반영되기도 해요.

- ①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한 세상일 거야.
- ②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 ④ (가)의 화자는 '피마저 불어 넣'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나)의 화자는 대상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여 '자유'를 함께 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 ⑤ (가)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입'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34.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시인의 탐구를 보여 준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다시 언어에 구속된다는 필연적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 ① ㉠은 자신의 언어 속에서도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 ② ㉡은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은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여 언어와 대상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④ ㉣은 대상들을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외부 상황에 변화를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⑤ ㉤은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여 자신이 제한한 의미에 따라 대상들이 움직임을 의미한다.

23 9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낮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젓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 하나이다.”

하고 할머님께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낭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십
 [B] 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퇴되,
 “㉢ 칙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친하 유명한 보배이옵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없되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삼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낱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도문: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18. ‘춘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한다.
-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에게 읽어 준다.
- ③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④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동생을 막아선다.
- ⑤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1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곧이어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다.
- ②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③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④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한다.
- ⑤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20.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 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 ② ㉡: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다.
- ④ ㉣: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만 두어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없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23 9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러 풀러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닛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였었다

- 김영랑, 『연1』 -

* 아슴풀하다: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다: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아슬아슬’의 방언.

(다)

㉔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㉕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물결무늬.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침침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각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발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뱀’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뉘’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②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이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가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가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이 ‘물을 보는 법’을 ‘씨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23년 9월 시행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월일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견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뜬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벨세이고
 앞 여울 가리 열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활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셋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 고블: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평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불* 갈기 솔질 활활 활활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팽팡쌩쌩 박아 송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지나
 굶으나 굶으나 지나 주섬주섬 낚아 내어 시내 동으로 뺨은 움베들
 가지 와이끈 똑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놀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뱀뿔통 고추장 술병
 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쁜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 구불구불: 말 모는 하인.
-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3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려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 다음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상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구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해

설

꼬

지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 산’이라는 시어에서 계절이 드러나고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 등을 통해 봄에 해당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에 나타난 ‘살구꽃’은 봄에 피는 꽃이므로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로 볼 수 있으며, ‘살구꽃 저 쌓이니’에서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좋은 나물’이 ‘때 알아 돌아나’는 자연물의 속성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교훈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는 자연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나 그 속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연물을 통한 교훈적 의미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 변화를 드러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나그네’라는 시어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지만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나)에서는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23.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제10곡>에서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돌아온 율리에서 화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연명이 살았던 마을이 ‘율리’인데, <제1곡>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아온 마을의 지명이 이와 같음을 언급하여 도연명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8곡>에서는 강산을 삼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한 부분 등에서 자연의 가치가 부각되었고, 조각배에 올라 밤낚시를 하며 느끼는 맑은 흥취(‘청흥’)를 강조하고 있다. ④ <제15곡>에서는 ‘세버들 가지 꺾어’, ‘남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를 찾으려’는 등의 다양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17곡>에서 화자는 ‘최행수’와 ‘조 동갑’을 부르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운 삶을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서재’를 지켜 ‘한묵의 유희로 폭 박혀 있’는 것도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고, 서재에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으며

로 ㉠이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이라 할 때, 이와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한 마음이나.’로 드러내고 있다. ② 낚시 도구와 자신의 관계를 ‘객’과 ‘주인’이라는 말로 나타내었으며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찌’가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물고기가 찌를 문 순간으로,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낚시를 하기 전에 글쓴이는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낚시를 해 본 후에 글쓴이는 ‘고인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뒤송송한 세상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51.3%

25.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도연명’과 자신이 ‘수졸전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연명’은 화자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판교’가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며 ‘강상의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라고 하였다. 글쓴이 역시 ‘판교’와 같은 마음으로 낚시를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판교’의 행적을 따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삼공’은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로 볼 수 있으나 (다)의 ‘성격 파산자’는 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의 ‘세버들 가지’는 낚은 고기를 쬐는 용도로 쓰인 자연물이다. 단순히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화자가 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의 ‘청수한 한 폭대’ 역시 풍류를 즐기는 수단이므로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고기’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이므로 이를 화자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에서 ‘송사리’는 아주 작은 물고기라서 글쓴이가 낚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글쓴이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나)의 ‘시름’은 번잡한 속세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의 ‘욕’은 속세를 버리고 은거한 옛사람들에 대해 글쓴이가 한때 가졌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은 아니다.

2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A]에는 낚시를 하며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꺾인 상황에서 오는 실망감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던 체면이 손상된 상황에서 오는 한탄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 글쓴이의 경이감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에도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에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B]에서 글쓴이가 새로운 이상을 품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B]에서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라고 말하였지만 이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온 골’은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울리’라는 마을이고, ‘주가’는 ‘울리’에 있는 공간이므로 ‘주가’와 ‘온 골’이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것과 ‘넓은 다리’가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백 년 근심’이 사라지게 하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백 년 근심’은 속세에서의 삶에서 유발되는 근심이므로 ‘신선 골짜기’는 속세와 대립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돌아온 ‘울리’라는 마을에서 ‘이대도록 시원하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속세와 ‘울리’가 대비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낚시를 통해 세상일의 뒤숭숭함을 잊고자 하는데 (다)의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낚시의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못가’는 글쓴이의 지향이 담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서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내 서재’에서 바람을 실현하지 못하므로, 그 이면에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2~34] 문학

[32-34] 현대시 - (가) 김기림, '연륜' / (나)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지문해설 : (가)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연륜(年輪)'은 나무의 나이테를 이르는 말로,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 온 '서른 나문 해'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륜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제]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나)는 주체성과 개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참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대립되는 성격의 소재와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플라스틱 물건'은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도시인의 삶을 상징하고, '시퍼런 무쇠 낫'과 '꼬부랑 호미'는 개성적 삶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또 '현대 아파트'는 도시적 일상의 공간이고, '털보네 대장간'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이다. 화자는 전자에서의 삶이 '똥덩이'처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느껴 후자에서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가 '꽃 이파리처럼' 무너져 발 아래 깔렸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나'가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쓸모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는 하강적 이미지의 '꽃 이파리'와 '똥덩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② (가)에서는 '섬'으로 가는 화자의 움직임이 '갈매기'에 빚대어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자연물에 빚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처럼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독백적 어조’로 밝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또한’은 ‘그것과 함께’라는 뜻으로, 대상과의 동질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 역시 불꽃 같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의 ‘마구’는 ‘함부로’라는 뜻으로, 부정적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함부로 취급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비슷하게 취급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마구’는 화자가 자신과 ‘플라스틱 물건’ 간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말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열렬히’는 ‘애정이나 태도가 매우 강렬하다’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적극적인 태도로 추구하고겠다고 밝히고 있다. ② (나)의 ‘한꺼번에’는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량으로 소비되는 물개성적 ‘플라스틱 물건’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말이다. 이 말은 ‘하나씩’과 대비를 이루어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꼬부랑 호미’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③ (나)의 ‘온통’은 ‘전부’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부끄럽다는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날로’는 ‘날이 갈수록’이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당장’은 ‘일이 일어난 바로 직후’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 말을 통해 플라스틱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67.3%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주름 잡히는 연륜’은 ‘피려던 뜻’이 굳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불꽃’은 화자가 추구하려는 열정적 삶의 태도를 의미하며 ‘연륜’에는 ‘불꽃’과 같은 열렬함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불꽃’이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서른 나문 해’는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의미하는데, 화자가 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변변치 않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③ (나)에서는 도시 문명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화자가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고 했는데, 앞서 화자가 되고 싶다고 한 사물들은 털보네 대장간의 ‘무쇠 낫’이나 ‘꼬부랑 호미’이다. 이는 화자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를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걸려 있고 싶다’는 결핍에

[28~31] 문학

[28-31] 현대시 - (가) 오장환, '종가' / (나)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지문해설 : (가)는 퇴락한 종가의 모습과 봉건적 위세를 잃고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의 모습을 통해 유교적 봉건 질서가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종가는 한 문중에서만이 아니라 이어 온 집안인데, 이 작품 속 종가는 폐쇄적이고 암울한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분열된 상황과 어수선한 제사 분위기,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과거와 달리 고리대금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현재의 퇴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폐해진 종가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고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봉건 질서의 몰락

지문해설 : (나)는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통해 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2~7행에서 처용설화와 처용가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하는데, '노래'는 '귀신'을 감복시키고, '처용의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으로 이어져 후세에 전해진다고 보았다. 8~11행에서 화자는 현재를 '악보'가 사라진 시대로 인식하며, 이후 부분에서는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하여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를 지향하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심장'은 감성, '뇌수'는 이성과 관련된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노래'는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지만 '이야기'는 덧난 상처를 다스리는 처방이라고 보아, 이상적인 시의 형태로 '노래'와 '이야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28.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주는 종가의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그런데 종가에서 평소에는 신주를 '곰팡이가 나도록' 방치해 두다가 '제삿날'이 되면 '갑자기'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도록 하여 귀하게 대접한다.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것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다는 구절과 연결되어 자손들이 대립하여 분열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퇴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것은 동네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던 종가의 행위를 통해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종가의 부당한 위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의 모습을 통해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는 것이므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⑤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가 탐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허위성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종가에 대한 전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2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은 감동을 유발하는 ‘노래’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의 2~3행에서 ‘노래’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만한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붙여넣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 내고 ‘가사’만 남은 상태가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은 마지막 행의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형상화한 부분이나 이들이 결합되었을 때의 ‘단점’을 형상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1행의 ‘노래’가 ‘심장’에 박힌다는 말로 보아, [B]에서 ‘시인’의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A]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하는 힘을 보여 준 ‘노래’와 대비되는 ‘가사’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므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와 무관하다. [B]는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가 제시된 것이다.

3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는 ‘지금도’ 이후에 제시된 ‘마을의 풍설’을 통해 ‘동네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종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이제’ 이후에 ‘악보’가 사라진 오늘날의 ‘시집’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쨍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과거에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던 종가의 부정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윙윙거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종가’ 뒤뜰에 ‘달걀귀신’이 있다는 마을의 풍설을 제시하여 종가의 음산한 기운과 부정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은 외부와 단절된 종가의 폐쇄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검은 기와집’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종가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가 ‘상처’를 ‘쉬이 덧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처용’이 부른 ‘노래’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만든다는 것을 통해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용’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는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한 것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뜻하므로 이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와 무관하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는 이 시의 4~5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닝닝거린다’와 ‘살아 나간다’라는 현재 시제형 표현을 통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어수선한 행동과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종갓집 영감님’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시제의 사용은 <보기>에서 말하듯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동네 백성들’에게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함으로써 종가의 부당한 횡포에 억압당하던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종가가 지닌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마지막 행에서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함으로써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기를 바라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해 줄 이야기와의 결합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종가’에 얽힌 화자의 경험과 종가와 연관된 ‘동네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12~15행에서 ‘이야기’를 통해 ‘노래’가 주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닌 의미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 시가 - (가) 허난설헌, ‘규월가’ / (나)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시대의 규방 가사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이 들고 외로운 서글픈 상황에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는 것으로 화제를 이어 가고 있다. 고사나 관용구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스러운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주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지문해설 : (나)는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 말미의 만항청류에 포함된 사설시조이다. 임과 헤어진 후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나 ‘개울에

섰는 버들'과 같은 외부 대상이 '흔덕흔덕', '흔들흔들'하는 모습에서 임과 헤어져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고 있다. (나)의 종장에서는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를 제시하여,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슬픔을 분출하는 화자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 중에는 임과 헤어진 후의 그리움을 노래하며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를 형상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조도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임과 이별한 슬픔과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봄바람', '가을 물', [B]에서는 '겨울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A]는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상황에서 '설빈화안'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계절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전히 화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스러운 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베오리', '복' 등 베들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였는데, 화자는 이들 소재가 베를 짤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빗대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차고 찬 제', '길고 길 제' 등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과 해가 긴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이라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겨울밤 차고 찬 제', '여름날 길고 길 제'와 '자최는 섰거 치고', '긋은비는 무슨 일고',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과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등의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자는 잠을 통해 꿈속에서 남편(임)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과거에 남편과 혼인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③ ㉢은 과거의 회상으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비롯된 행동으로, 임과의 이별을 망각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으로 볼 수 있지만 ㉔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㉑ 앞에 나오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 등을 통해 ㉑은 화자와 남편의 인연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㉔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보겠다는 재회의 갈망이 담긴 것으로, 화자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64.4%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벽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한스럽게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뉘 귀에 들리소니’는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이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솔’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소나무’의 모습과 임이 그리워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어 울며 ‘후루룩 비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삼춘화류 호시절’은 봄날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데, 화자가 여기에 대해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부의 아름다운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버들’은 화자가 그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표현이지만,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화자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23] 문학

[18-23] 갈래복합 - (가) 이육사, '초가' / (나) 김관식, '거산호 2' / (다) 이육, '담초 (談艸)'

지문해설 : (가)는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힌 작품으로, 이 창작 장소에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묘사한 후, 이제는 낡고 닳은 '고향을 그린 묵화'를 보여 준다. 그 그림은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 그림으로, 화자가 고향을 떠난 오랜 세월을 고려할 때 이 그림 조각들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단편적인 기억이나 인상들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봄날의 보리밭 정경과 나물 캐고 그네를 타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 돈 벌러 항구로 나간 젊은이들 이야기, 힘겨운 노동에도 풍부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현실 등을 보여 준 후, 강물조차 얼어붙게 하는 한겨울의 풍경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지문해설 : (나)는 산에 대한 묘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화자는 변함없이 푸름을 간직한 산을 인간과 대비하고, 산의 모습에서 교훈적 덕목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산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곳으로 인식하며, 맑고 깨끗한 산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렇게 형상화된 산의 모습에는 자연을 속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간이자 인간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동양적 자연관이 투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주제]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

지문해설 : (다)는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형체를 부여 받아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교함과 졸렬함에 차이가 없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귀하고 천하다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꽃과 풀은 조화가 균일한 것이므로, 인간이 꽃과 풀이 위치하는 공간과의 거리나 꽃과 풀의 크기 등에 얽매어 가치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주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18.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인간이 친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는 반면 소원하게 대하는 자연물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자연물을 차별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피폐해진 농촌의 모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지만 그 실마리가 되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에서 화자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인 장거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함께 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므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피폐한 농촌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도 역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꽃과 하찮게 여기는 꽃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 (다)는 모두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나)에서 화자는 산과 교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장소에 대한 어둡고 삭막한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에는 1문단에 자연과 교감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가)의 [C]에서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는, ‘그넷줄’을 매는 단오절을 전후로 하여 내리는 비에서 가을의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속신(俗信)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음 행의 ‘씨레나무’는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혹은 뗏목용 나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또는 ‘홍수로 앞내강에 뗏목이 떠밀려 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 보아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낸 것도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의하면 이육사는 ‘유폐된 지역’에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며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A]에서 보듯이, 작품에는 그곳이 ‘구겨진 하늘’ 아래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으로 나타나 있다. ‘구겨진’,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등은 ‘유폐된’ 장소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시어들로 볼 수 있다. ② [B]에서는 ‘보리밭’,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 ‘종달새 소리’ 등으로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봄날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말매나물’은 봄에 낮은 지대의 밭이나 들에서 자라는 ‘말냉이’의 방언이다. ④ [D]의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 애써 지은 농사에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실이,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에 현실 너머의 세계(‘북극’)를 꿈꾸는 소년(‘곰처럼 어린 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 ‘강물조차 얼붙는다.’에 나타난 삭막한 겨울 이미지는 <보기>에 제시된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20.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산’을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덕성을 가진 존재로 여긴다. 그러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4행에서 보듯이 화자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태고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산을 대비하고 있다.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9~11행에서 화자는 ‘산’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다리 놓는’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화자가 ‘그(산)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라고 한 데에서 산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에서 드러나듯이 화자는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2~15행의 ‘그리운’, ‘그리며’, ‘그리며 산다’ 등의 시어에서 ‘산’이 그리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⑤ 7행에서 보듯이 ‘산’은 화자가 ‘본시’ 사랑하는 대상이며, 8행에서 보듯이 ‘평생’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기에 화자는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으며, ‘꿈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즉 화자에게 ‘산’은 평생을 함께하는 존재이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이다.

21. 작가의 관점 및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치의 우열 또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모란과 해당화를 견주어 보면서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꽃의 쓰임새에 기준을 두고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② ‘나’는 ‘귀함’과 ‘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범상한 화초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가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은 ‘나’의 생각과 거리가 멀다. ③ ‘나’는 ‘날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풀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달리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53.2%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연에서 ‘묵화’와 ‘박쥐 나래’는 어둠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묵화’ 자체가 먹으로 그린 그림이기도 하지만, ‘고향을 그린 묵화’는 ‘좀이 쳐’ 있어서 어둡고 낡았다.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에는 황혼이 지고 어둠에 묻혀가는 마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 연결이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9행의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12행의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연부터 이어지는 ‘묵화’의 ‘그림 조각’들을 당대의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서 ‘북창’을 통해 보이는 ‘산’이 절망적 상황에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저승의 밤’은 ‘이승의 낮’과 함께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존재로서의 ‘산’을 말하는 맥락에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③ (가)에서 ‘고향’을 그린 ‘좀’이 친 ‘묵화’는 오래 세월이 흘러 낡고 헌 그림이다. 그러므로 ‘좀이 쳐’는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는 ‘오늘’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는다. 이는 ‘장거릴’ 등지게 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등에서 보듯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는 ‘오늘’을 시점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④ (가)의 1, 2연에 의하면 ‘그림 조각’은 ‘고향을 그린 묵화’의 ‘띄엄 띄엄 보이는’ 조각이다. 그것은 화자가 분절하여 제시한 고향의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낡고 닳아 부분적으로만 떠오르는 ‘조각’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화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고향’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로 해석할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 ‘산’은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하여 아늑한 분위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⑤ (가)의 2~3연에는 ‘말매나물 캐러 간/가시내’가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나도 부끄러워’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다는 내용이 있다. 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이 역시 ‘묵화’에 그려진 ‘그림 조각’의 일부이다. ‘모매꽃’은 ‘메꽃’의 방언으로 옅은 붉은색을 띠는 들꽃이다. 그러므로 ‘모매꽃’을 통해 ‘가시내’들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보옥’은 ‘산’의 검허한 덕성을 드러내는 맥락에서 쓰인 시어이므로,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상관이 없다.

59.1%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호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이므로 그 속성을 고려할 때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젊은이들은 피폐한 농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객지로 떠도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젊은이들이 탄 ‘뗏목’은 물결이 거세지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이므로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장거리’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서는 거리로, 이해타산에 따라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장거리는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하찮게 여겨져 여물로 쓰이는 것인 반면, ‘나비’가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가 다투어 찾는 것은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기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고전시가 수필 복합 - (가) 황희, '사시가' / (나) 조우인, '자도사' / (다)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지문해설 : (가)는 연시조의 형식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삶과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1수에서는 봄을 배경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밭을 가는 분주한 일상이 나타나며, 2수에서는 여름날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옷을 입고 밭을 갈다 녹음이 우거진 곳에 누워 잠드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3수는 붉게 물든 골짜기에 대추와 밤이 익어 가는 풍경과 추수를 끝낸 눈에 게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함께 술을 걸러 먹으리라는 화자의 흥취도 제시되어 있다. 4수는 새도 사람도 하나 없는 눈 덮인 겨울 풍경 속에 홀로 낚싯대를 드리운 노인의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사계절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풍류

(나)는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 옥에 갇힌 작가의 애절한 심정을 남녀 관계에 의탁하여 읊고 있는 가사이다. 정확한 창작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가가 광해군 때 시화(詩禍)를 입어 3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도사'에서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역모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다)는 전통적인 집에 얽힌 아름다운 기억을 '그'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면서 더 이상 탄생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살았던 집은 '그'와 가족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공간으로 모든 것이 뚜렷하고 명료한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 역시 명료하였다. 그러나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글쓴이는 탄생과 죽음이 있던 전통적인 집의 역사는 끝이 났으며 탄생과 죽음이 없는 현대의 쓸쓸한 집만이 남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주제] 전통적 집에서의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그리움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제1수>의 ‘강호에 봄이 드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음력 선달 거의로다’,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한 긴장감의 조성을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에서는 자연 속의 삶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이 제시되므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나) 역시 자연과 인간이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들며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없다. (다)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명료한 자연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달리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대비하여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는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상과의 문답의 형식을 취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다)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④ (가)는 전원생활을 하는 화자의 한가로움을 노래한 작품이므로 초월적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의 경우 임이 계신 곳을 ‘천문구중’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하늘’이라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에서는 초월적 공간을 확인할 수 없다.

2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제2수>의 초장에서는 샷갓에 도롱이를 입은 후 가랑비 속에서 호미를 메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밭을 맨 후 녹음 속에 누워 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1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풍경이 묘사되고 있지 않다. ③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서 나타난 인물은 가랑비 속에서 밭을 맨 후 녹음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3수>의 초장은 가을에 밤이 떨어지는 모습이므로 <제2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가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3수>의 초장은 밤이 떨어지는 모습을, 중장은 벼를 벤 논에 게가 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초장과 중장이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4수>의 초장은 겨울 산에 새도 보이지 않고 들에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므로 동적 분위기가 아니라 정적 분위기가 나타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한겨울의 추위를 걱정하여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한다. 따라서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에는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임의 옷을 기우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구중궁궐에 가는 것이 아득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간장이 다 썩고 뉘조차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자신을 애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백일’은 임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고, ‘뒤집힌 동이’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므로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은쟁’은 악기이고, ‘원곡’은 원망하는 마음을 담은 곡조이므로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의 ‘녹음’은 자연 속 공간으로 화자가 누워 있는 곳이므로 평온한 분위기의 장소라 말할 수 있다. (나)의 ‘동방’은 임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므로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라 볼 수 있지만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나)의 ‘자규’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있지만 (가)의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로 볼 수 없다. ④ (가)의 ‘잠든 나’의 ‘잠’은 전원 속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보여 줄 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볼 수는 없다. (나)의 ‘임의 잠’을 깨우고자 하는 것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돌아가니’는 익은 술을 맛보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계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동짓날 자정이 돌아오자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을 닫고 있으므로 ‘돌아오니’가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3.5% 2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그 집’은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인 반면, ‘아파트’는 그러한 비밀들을 아예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 집’에서 자란 ‘그 집 아이들’은 굴뚝 연기가 낮게 깔리면 다음날 비가 온다는 비밀을 알았다. ③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사계절이 불분명한 아파트에서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그 집’에서 알 수

있는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④ ‘그 집’은 탄생과 죽음이 있는 공간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구도 그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며 죽음 또한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더 이상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속’은 아파트를 가리킨다. 글쓴이는 아파트에서의 삶은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한 삶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작가는 낚시의 깊은 맛에 몰입한 사람을 보며 그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자는 전원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누리고 있으므로 화자가 ‘저 늙은이’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저 늙은이’를 작가로 본다면 (가)는 전원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아녀자’를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힌 작가로 볼 경우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그’를 작가로 볼 경우 이는 작가 자신을 타자화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하면 개인적 경험을 객관화할 수 있다.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을 포함시킬 경우 작가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우리들’이라고 말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설명 역시 적절하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주인공 방삼복이 미군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잡는 과정을 통해 해방기의 혼란한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방삼복은 백 주사를 만나는데, 백 주사는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된 아들 덕에 권세를 누리다가 해방 직후 성난 군중에 의해 집과 재물을 빼앗기고 목숨만 보전하게 된 인물이다. 미천한 일을 하다가 기회를 틈타 권세를 잡았다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과, 그런 방삼복을 통해 빼앗긴 재물을 되찾을 궁리를 하는 백 주사는 모두 해방기의 부정적 인간상을 나타낸다.

[주제] 광복 직후 혼란기의 세태 풍자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열어 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사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방삼복은 술을 정종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서 주사를 비난하다가, 아내에게 정종을 데워 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 방삼복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④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탕던 차에서 내린 뒤, 어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9.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해설 : ㉠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적 모습이,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과 ㉡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과 ㉡에서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에서 방삼복의 조바심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에서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30.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㉞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가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㉞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㉞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④ ㉞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㉞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2.7%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그의 광에는~ 날이 없었다’에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에는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② [B]에서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 ‘있었더란다’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고만두고 말이였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④ [D]에서 ‘백 주사가,~ 고리대금을 하고 하엿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32~34] 문학

[32-34] 현대시 - (가) 신동엽, '향아' / (나) 기형도, '전문가'

지문해설 : (가)는 '향'이라는 청자를 설정하여 허위와 가식이 넘치는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는 농촌 공동체가 존재했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가 '향'에게 '돌아가자'고 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전설 같은 풍속'이 있던 공간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던 농경 문화가 지배하던 곳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그곳에 가면 '병들지 않은 젊음'과 '싱싱한 마음밭'을 지닐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에 화자가 살고 있는 현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이 가득하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존재하는 곳으로, 화자는 '향'에게 이러한 물질문명의 허위와 가식에 물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유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

지문해설 : (나)는 동화 같은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 권력자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사온 그'의 집에 세워진 유리 담장은 어두운 골목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로, '아이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담장의 즐거움에 취해 '그'의 술수에 길들여지고,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간다. 그 사이 잠시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었지만, 소속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아이는 골목에서 추방당한다. 결국 모든 유리 담장이 사라져 골목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그'는 권력자, '아이들'은 '우매한 군중', '유리 담장'은 권력자가 우매한 군중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환영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시의 제목 '전문가'는 권력자들이 어리석은 군중을 교묘하게 길들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통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권력자의 기만적 통치술에 이용당하는 우매한 군중의 모습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그’가 이사 온 후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그리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 어리석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기만적 통치술을 지닌 권력자에 의해 우매한 군중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간단한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권력자들의 비열한 통치 전략과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중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며 옛날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할 뿐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수수력’, ‘미끈덩’은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경이로움을 느낀 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과거 경험했던 세계이다.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지 않았고, 경이로운 상상 세계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④ (가)에서 ‘돌아가자’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변주한 ‘가자’, ‘가자꾸나’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나)에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시적 청자인 ‘향’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청유형 어조로 전달할 뿐 위로하는 어조로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을 객관적 태도로 전달할 뿐, 충고하는 어조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3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을 볼 수 있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곳이며,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곳이다. 이처럼 ㉠은 노동과 놀이가 공존하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촌을 상징한다. ㉡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매일같이 유리 담장을 깨뜨렸던 공간인데, 유리 담장이 모두 깨지자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벽돌을 날’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처럼 ㉡은 ‘아이들’이 철없이 놀이만 즐기다 결국 자유를 빼앗기고 노동만 하게 된 공간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 일을 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추방 이외에는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공간이다. ② ㉠은 ‘향’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은 아니다. ㉡은 ‘아이들’이 ‘그’의 부하로서 요청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③ ㉠은 ‘향’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므로 낯선 공간은 아니다. ㉡은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가 추방당하고 일렬로 선 아이들이 묵묵히 일만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개성이 박탈당한 상실의 공간이다. ⑤ ㉠은 화자가 ‘향’과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곳으로, 둘의 우호적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은 ‘그’에 의해 ‘아이들’이 굴종당하는 곳으로, 상생 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은 아니다.

57.9%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그 미개지’는 ‘오래지 않은 옛날’에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고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했던 공간으로, 화자가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고 한 것은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지금의 공동체가 건강한 생명력이 넘치고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그동안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떼어내자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골목의 참모습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유리 담장’은 ‘그’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활용한 환영의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공동체로, ‘기생충의 생리’에 인이 배기기 전에 돌아가자는 것은 자족적인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는 유리를 깨며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송판 담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가 골목에서 추방당한 일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가)에서 화자가 ‘향’에게 그만두라고 한 행위인 ‘발돋움의 흉내’는 가식적인 현대 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유리를 깬 것을 용서한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 대중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가)에서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농경 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나)에서 유리 담장이 사라지자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28~31] 문학

[28-31] 현대 소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연작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다섯 편 가운데 한 작품으로, 야간 통행금지 상황을 내세워 한국 사회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주인공 '나'(철이)는 겨드랑이에 통증을 느끼고, 집 밖에 나가면 이러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금지된 밤 산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며, 그러면서 그는 서울 도심 곳곳을 찬찬히 관찰한다. 그리고 4·19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벌이는 기괴한 매스 게임을 구경하고 5·16 군사 정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주제] 1960년대의 억압적 시대 상황과 자유의 문제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에는 주인공이자 중심 인물인 '나'의 '겨드랑에 생긴 이변'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이 나타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윗글에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에 의한 서술만 나타나 있으므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글에 '방', '뜰', '거리' 등 공간 이동에 따른 '나'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0.4% 29.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④ ‘나’는 자신이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관청에서 정한 통행 제 규칙을 지키면 겨드랑이가 ‘요절이 나고’ 결국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 ‘나’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의사 앞에 있는 시간에 자신의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이 ‘방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쏘신 증상 때문에 제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뜰’의 어느 구석에 숨는 행동을 하곤 했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었다고 하면서,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⑤ ‘나’는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혁명가’, ‘간첩’, ‘도적놈’ 등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있다.

30.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은 ‘경관’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통행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므로,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겨드랑이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숨긴 공간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 ㉠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 ㉠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면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한편 ‘나’에게 있어서 산책의 ‘공리적인’ 목적은 겨드랑이의 통증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보기>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산책의 의미가 치료를 위한 행위에서 자유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참고하면 뒷글에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이 정당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가 통증을 겪은 결과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난 점을 고려하면,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뒷글에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체불명의 파마늘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를, ‘날개’의 형상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뒷글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뒷글에서 ‘날개’가 ‘꿇바퀴’ 같다고 한 것은, 여러 차례의 산책 끝에 ‘날개’가 돋았지만 그 ‘날개’를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날개’가 ‘꿇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박인로, '소유정가'

지문해설 : (가)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가」를 이현보가 5수의 연시조로 개작한 것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어옹(假漁翁)'으로 유유자적하면서 임금과 속세의 정치를 생각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당시 사대부 계층이 가졌던 의식 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강호의 정경이나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상투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제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훗날 윤선도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부사시사」를 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어부의 삶

지문해설 : (나)는 17세기 무렵 박인로(1561~1642)가 정구(1543~1620)와 함께 대구에 머물렀을 때 소유정(小有亭)이라는 누정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표현한 가사 작품이다. 다양한 비유와 고사를 활용하여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실감나게 묘사하였으며, 그 속에서 뱃놀이와 낚시를 하며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삶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의 태평성대를 희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소유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삶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㉞은 '~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닷'을 드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배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㉟은 '산두에 ~ 일고'와 '수중에 ~ 난다'가 서로 대구를 이루며 '산', '운(구름)', '수(강)', '백구'와 같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가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은 자연 경물인 '한운'과 '백구'를 '너'로 지칭하면서 화자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생'에 걸쳐 '쫓아 놀리라'라며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③ ㉡은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라는 자연 경물이 '석양에', '눈'과 같이 어지럽게 흩날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⑤ ㉢은 화자와 유사하게 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인 중국 송나라 때의 소식도 화자의 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교하여 말함으로써 뱃놀이를 맘껏 즐기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3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해설 : [B]에서 화자는 가을날 밤에 뱃놀이를 하던 중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에 비쳐 마치 강물에 잠긴 것처럼 보이는 달 사이에 놓여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달은 시공간적 배경과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강호 자연에서 ‘무심(욕심이 없음)’을 느낄 뿐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지도 않다. ② [A]에서 화자는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달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④ [B]에서 화자는 가을의 계절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거나,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 모두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두 화자 모두 달을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 않고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다.

50.3%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의 ‘추풍’은 ‘때마침 부는’ 것으로서 화자가 ‘반갑게’ 생각하며, 어촌으로 ‘내 놀이’를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풍’은 귀범(멀리 나갔던 뚝단배가 돌아옴)을 돕는 자연 현상으로서 뱃놀이의 흥취를 유지시키고 있으나,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속세의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면서 ‘인세(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모두 작은 배에 속한다. 이는 화자가 강호 자연 속에서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는 강에서 잡은 고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꿰어 모아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이며, 이는 강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강호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노래하며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나)의 어부는 ‘벗’을 불러 어촌에 와서 함께 흥겨운 뱃놀이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 동파 적벽유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흥을 느끼고 그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22~26] 문학

[22-26] 갈래복합 -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나) 김낙행, ‘기취서행’

지문해설 : (가)는 총 19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사대부인 작가가 겪은 공명과 은거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제2수>부터 <제7수>까지는 공명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을, <제8수>부터 <제13수>까지는 자연 속에서의 은거하는 삶을 선택한 후의 모습을, <제14수>부터 <제19수>까지는 내적 갈등의 극복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세계와 강호에 대한 인식, 이에 따른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공명과 은거 사이의 갈등과, 한가로운 강호의 삶에 대한 긍정

(나)의 글쓴이는 껍질을 벗긴 삼대인 겨릅을 더 가지고자 사람들과 이전투구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욕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글쓴이는 탐욕에서 벗어나 본심을 회복했을 때의 상태를 대취했다가 술이 막 깬을 때로 비유하고, 맹자와 이극이 한 말처럼 궁핍해도 의를 잃지 않으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살펴보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주제] 이욕에 사로 잡혀 의리를 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E]에서 글쓴이는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겨릅을 얻어 오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의리를 잠시 잊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어조’를 대상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조’를 한가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화자는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워 세상일에 대해 번잡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C]에서는 성현의 삶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 성현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D]에서는 취서사에서 겨릅을 구해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점층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드러낸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없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백세’는 백 년을 의미한다. 화자는 세월이 빠르니 백 년도 길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세’를 통해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도,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효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은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이 화자의 인생을 모두 포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충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십재(십 년)’는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만고’는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성현의 가신 길이 유구한 세월 동안 한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십 년 전’은 진세, 즉 번거로운 세속의 일에 대한 일념이 가득 차 있던 과거의 시절을 가리키므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8.9%

2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서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는 충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충’의 실천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임천’으로 대변되는 삶, 즉 속세를 멀리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과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제8수>의 ‘출’하는 것은 세속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므로 ‘너를 좇으려’했던 태도가 ‘출’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8수>의 명철 군자가 즐기는 ‘이것’은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하는 삶이다. ‘치군택민’은 ‘충’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즐기나니’에 <제1수>의 ‘이 두 일’ 즉 충과 효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수>의 ‘절로 한가하였’던 것은 화자가 아니라 무심한 어조의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부러워하여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제3수>에서 물고기와 새의 한가로움을 부러워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17수>에서 화자는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현이 추구한 도가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제19수>의 ‘일념’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세를 지향하는 삶으로, 화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러한 마음이 얼음 녹듯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무 덴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자신이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도와준 것은 ‘다만 나의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는 헛걸음하지 않고 겨릅을 얻어 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글쓴이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욕’에 빠져 ‘의리’를 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반성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자신이 곤궁함 때문에 치욕을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자신이 겨릅을 두고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할 줄 알았다면 아내가 자신에게 겨릅을 얻어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겨릅을 구해 오길 원하는 아내의 말에 대해 유택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유택이 취서사에서 겨릅을 얻어 오는 것이 ‘의리’에 부합하지 않고 ‘이욕’을 탐하는 행위라는 염려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유택과 달리 유평은 취서사에서 겨릅을 얻어 오는 행위에 대해 해 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겨릅을 얻어 오는 일이 ‘의리’를 심히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유평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도무지 할 일 없어’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를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밝아 대’는 모습은 겨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글쓴이가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은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부귀를 위기로 인식하면 가난하게 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엿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글쓴이는 궁핍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로서의 신념이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의 티끌에 마음을 전혀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힘겹게 구해 온 겨릅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는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숨어 있거나(隱), 세상으로 나가거나(出) 도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글쓴이는 의를 잃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여 성찰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7~30] 문학

[27-30] 현대소설 - 최명익, '무성격자'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근대 지식인이 가진 내면 의식의 추이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경 유학생 출신의 교사인 주인공 정일은 현실적인 삶에서 무게와 고통을 느끼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경멸의 대상이나 귀찮은 존재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는 돈만 아는 속물로 경멸했던 아버지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인의 의의를 느낀다. 무성격한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주제] 근대 지식인의 무성격한 모습

42.6% 27.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일이 경험하거나 감각한 일과 정일의 내면으로 사건의 양상이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회상 장면을 병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산판알, 도장, 물그릇, 어항 등의 사물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정일이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들이 쏟기를 계속하는 대목에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일의 반복적인 행동은 병을 앓는 아버지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는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㉞는 '용기를 못 내는 자기'와 달리,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아버지가 있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의 모습을 정일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㉞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㉞는 용팔이 상속세를 물지 않을 방안을 정일에게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장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계산을 하며 상속세 물지 않을 궁리를 하는 용팔의 모습에서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정일이 이러한 용팔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② ㉞에서 용팔이 정일에게 '공손히' 행동하고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㉞에는 용팔이 정일의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중문 안'으로 들어가자, 정일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주시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⑤ ㉞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정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29.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A]에서 정일은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자신과 공모하려는 용팔의 언행을 접하며 불쾌함과 미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은 ㉠을 일으켜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된다. [B]에서 정일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는 아버지에게 ‘물그릇’을 놓아 주었다가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이도록 ‘어항’을 늘어놓고, 아버지가 그로 인한 ㉡에도 만족하지 못하자 ‘흐르는 물’이 보일 수 있게 ‘드리우는 물줄기’를 만드는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정일이 용팔의 ‘웃음’을 미워하며 느낀 불쾌감으로 인해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황홀한 눈’은 ㉡을 갈구하는 아버지의 눈을 나타낸 것이므로,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정일이 용팔에게 ‘도장’을 내어 준 후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아버지는 ㉡을 느끼려는 ‘동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③ [B]에서 ‘꺼멧게 탄 혀’는 심하게 앓다가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 주는데, 아버지는 ‘어항’이 환기하는 ㉡을 방편으로 삼아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정일이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은 정일의 ‘신경 쇠약’으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신경 쇠약’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B]에서 아버지는 ‘심한 구역’ 이후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갈증을 ㉡을 통해서나마 해소하려 하고 있으므로,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은 용팔이 ‘공모’ 요구를 하며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정일이 느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51.7%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팔이 정일에게 위임장을 내놓고 도장을 치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자, 정일은 그러한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고 불쾌감에서 비롯된 ‘심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일은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으면서도 용팔이에게 도장을 건네다가 ‘실없이 웃’는 자신이 ‘더 심한 심열에 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정일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일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용팔이를 속으로 ‘이 소인 놈!’이라고 하며 경멸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일은 용팔이 벌이는 행동에 반감을 느끼고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불러내고 싶어하지만, 행동을 주저하며 붙잡지 않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서 용팔이를 불러낼 기회를 놓친 것을 자신이 ‘정말 후회하’는지에 대해 자문하며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④ 정일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자신과 달리 고통 속에서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위대한 의지력’을 느낀다. 또한 그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모습은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정일은 아버지가 죽음과 싸우는 모습에서 ‘위대한 의지력’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가 ‘물줄기를 바라보’는 눈을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이라고 표현하며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주인공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34] 문학

[31-34] 현대시 - (가) 조지훈, ‘맹세’ / (나) 오규원, ‘봄’

지문해설 : (가)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에게 임은 ‘일월’처럼 ‘거룩한’ 존재로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흰뺨가 되’었지만 부활 때까지, 또 ‘봄은 마음이 솟이 되’었다 ‘다시 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 손길에 울고 임을 부르며 우는 모습도 임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작품은 이미지의 대비, 설의적 표현, 유사한 구문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는 특징도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

(나)는 표면적으로는 봄을 맞아 생명력 넘치는 주변 풍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시인으로서 언어 사용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1연에서는 언어를 통해 대상에 자유를 주려는 시도를 그리고 있다. 봄날에 보이는 ‘담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은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려는 대상으로, 자유로운 언어를 통해 대상을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러나 2연에서는 봄이 자유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언어와 대상이 모두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언어로 구속하려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언어의 한계를 밝히고 이에 따라 언어 사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새로운 언어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싸늘한 바위’와 ‘뜨거운 가슴’, ‘어둠’과 ‘해돋는 아침’처럼 촉각적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가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비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한 것일 뿐,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하지는 않았다. (나)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대상들의 행위가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상의 효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봄을 맞은 대상들의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는 1연에서 ‘~ 어찌하리야’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어떤 시련에도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화자의 상황 인식을 드러내고, 6연에서 ‘~ 지니라’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거룩한 임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화자의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② (가)는 4연에서 ‘사랑하는 것’을 모두 잃는 가

정의 상황을 통해, 9연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모두 잇는 가정의 상황을 통해 입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③ (나)는 ‘저기 저 ~, 저기 저’, ‘~은 내 언어의 ~고, ~은 내 언어의 ~고’, ‘~고 싶은 놈 ~고, ~고 싶은 놈 ~고’처럼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심표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운율을 느끼도록 한다. ⑤ (가)는 5연과 10연에 ‘나는 울어라’를 반복하여 부재 하는 입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는 1연의 끝 문장인 ‘그래 봄이다’와 2연의 첫 문장인 ‘봄은 자유다’에 공통적으로 ‘봄’이라는 시어를 넣어 ‘봄’이 곧 자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3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아픈 가락’은 화자가 입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리 가락이다. 그런데 이 노랫가락을 내는 피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흘린 곳’에서 난 대나무로 만든 것이므로, 이 가락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가락에 ‘아프’고 ‘사모침’이 담겨 있다는 것에서 가락에 설움이 담겨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6연에서 화자는 입에게 자랑과 선물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픈 가락’에 입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화자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대나무에는 의로운 사람의 피가 스며 있는데, 이는 입의 뜻이 아니라 화자의 뜻이 대나무에 서려 있음을 나타내며 화자를 질책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화자는 흐느끼는 피리의 아픈 가락에 입이 호응해 주기를 바랄 뿐, 입이 이 가락에 호응해 화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입이 구천에 사무친 피리 소리를 듣기 바란다.

63.2%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9연에 나오는 ‘붉은 마음’은 부재하는 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마음이 숲이 되었다가 되살아 다시 재가 될 때까지 못 잊겠다는 것은 영원히 입을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나)에서 봄날의 ‘담벽’은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처럼 화자가 언어로 표현하려는 주변 사물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지금 세상이 ‘어둠’에 놓여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며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나 ‘해돋는 아침’과 같은 밝은 세상을 맞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봄을 맞아 자신과 모든 대상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 대상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 자유를 얻은 ‘담벽, 라일락, 별, 개똥’이다. 따라서 ‘자유

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구르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세계의 대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꽃송이'를 창백하다고 여겨 자신의 입을 맞추려 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저 담벽'이 '서고', '저 라일락'이 '꽃이 되고', '저 별'이 '반짝이고', '저 우리 집 개의 똥'이 구르는 모습에 주목해 각각의 대상이 지닌 개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창백한 꽃송이'를 위해 '한방울 피마저 불어 넣'겠다는 것은 꽃송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화자는 '꽃피고 싶은 놈 꽃피고 ~ 아지랑이고 싶은 놈은 아지랑이가 되'는 것처럼 대상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여 마침내 이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뛰'며 자유를 누리려 하고 있다.

40.1% 34.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이 작품을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이라고 본다면, 2연의 처음에 나오는 '봄은 자유다'라고 한 후 ㉠에서 봄을 '지옥이라고 하자.'는 것은 '봄'을 하나의 언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은 언어에 의해 대상이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관습에서 벗어나 언어와 대상 모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구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담벽, 라일락, 별, 우리 집 개의 똥 하나'라는 대상을 자신만의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언어 사용 방식이 언어에 대상이 구속되는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따르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② ㉡은 표현할 대상에 자유를 주기 위해 이를 표현할 언어에도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언어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④ ㉢은 언어와 상관없이 대상은 변하지 않으므로 언어로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⑤ ㉣은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났을 때 획득한 자유의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새로운 언어 사용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 뿐, 자신이 규정한 의미에 따라 대상이 통제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18~21] 문학

[18-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안동의 한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고전소설이다. 천상의 선녀였던 숙영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백선군과 사랑하게 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지만, 부활하여 선군과 함께 승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효를 요구하는 부모와 그에 맞서 부부의 애정을 추구하는 자식의 모습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변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유교적 가부장제의 현실적 장애를 넘어선 남녀의 사랑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춘양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하며, ‘아버님 편지가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춘양은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할머니로부터 전해 받고 어머니 영전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춘양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언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지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해 답답해한다. 이를 통해, 춘양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 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춘양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 주기를 요청할 뿐,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다. ④ 춘양은 동생인 ‘동춘을 안고’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갔으며, 동춘은 ‘젓 먹자고’ 울 뿐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거나 이를 춘양이 막아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선군은 ‘태산 같은 정이 ~ 볼 수 없고’라며,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그사이 부모님께서서는 평안하셨나이까?’라며 받는 이의 안부를 먼저 묻고 나서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다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③ [B]에서 글쓴이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그림이 전과 ~ 달라 날로 변화’는 것을 보고 짐작을 통해 받는 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B]에서 ‘남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요?’라고 하며 상대방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었음을 말하면서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만, [A]에서는 ‘천은을 입’었다고 말할 뿐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는 않는다. ⑤ [B]에서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라면서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내용이 나오지만, [A]에서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전할 뿐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당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㉔에서 숙영이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서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영이 ‘너무 한탄치’ 말라고 말하는 것은 시아버지의 오해로 인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집에 돌아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㉑: 정 씨는 편지의 수신인이 ‘네 어미’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상대에게 ‘잘 간수 하라’면서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② ㉒: 정 씨는 ‘춘양아’, ‘동춘아’라고 손주들을 호명하면서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할 만큼 격해진 감정과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라며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④ ㉔: 숙영은 옥황상제의 ‘올라오라’는 부름에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간다고 말함으로써 예정된 이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㉕: 숙영은 부모가 춥지 않게 지내고 기운이 불편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마음으로 ‘백세 무양’을 기원하며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하고 있다.

56.9%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옆드려 고’하는 것은 선군이 부모와의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했을 뿐이지, 숙영 부부가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숙영 부부는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며 ‘세상 연분이 다하였’다고 말하면서 승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것은 숙영 부부가 먼저 천상으로 올라가고 지상에서 부모님의 생애가 끝나면 그때 부모님을 천상으로 모셔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숙영이 선군에게 인간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재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숙영 부부의 승천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숙영 부부를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인 가문이라는 명분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천상으로 보내서 살게 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 준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⑤ 숙영 부부가 ‘천궁에 올라간 후’, 상공 부부가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가문의 명분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공 부부의 모습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22~27] 문학

[22-27] 갈래 복합 (가) 박용래, '월훈' / (나) 김영랑, '연1' / (다) 서영보, '문의당기'
 지문해설 : (가)는 적막한 산골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절절한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노인이 사는 곳과 노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노인은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갱 속 같은 마을'의 '외딴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곳으로 노인이 세상과 고립된 채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노인은 한밤에 잠에서 깨어 무나 고구마를 꺾어 먹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무료함과 고독감,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름 모를 새'와 '귀뚜라미', 달무리가 비치는 시적 분위기도 이러한 노인의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

(나)는 '연'을 매개로 하여 떠올린 유년 시절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을 보며 '아스플'한 유년 시절을 반추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가 회상한 어린 시절은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외로이 자랐다', '눈물이 고이있었다'라는 시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외롭고 슬픈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화자에게 유년 시절은 늘 위태로웠고, 무언가를 상실했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파랑'게 보이는 '하늘'과 '흰 연', '하얀 옷', '하얀 냇'과 '붉은 발자욱'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슬프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의 회상

(다)는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지은 것과 관련하여 세상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신위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지었다고 밝히며, 글쓴이에게 이 집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글쓴이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배를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대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섬사람이므로, 물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살더라도 늘 물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물을 보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상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갱 속 같은 마을',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등은 노인이 사는 곳을 묘사한 것으로,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

의 2연은 하늘을 날고 있는 연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 부분으로, 연이 위태롭게 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넘실거리는 큰 바다 ~ 듯했습니다.’는 ‘천하의 지도’를 묘사한 것으로, 천하만국이 물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모두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이와 같은 이치를 ~ 의심을 품겠소?’는 설의적 표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위의 관점이 타당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였다. (가),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에서는 신위와 ‘나’가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나)에는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④ (나)에는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회상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가), (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⑤ (가)에는 겨울 귀뚜라미가 떼를 지어 우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았다. (나)에는 가상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다)에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을 통해 가상의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45.1%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것은 노인이 사는 마을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은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는 모두 시골의 정경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은 <보기>의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와 연결 지을 수 있으며, 눈발이 치는 듯한 ‘뽕’의 달무리 이미지는 <보기>의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24.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4연에서 ‘하얀 뉘’은 ‘외로이 자랐다’라는 시구, 곧 유년 시절의 화자가 느낀 외로움과 연관된다. ‘붉은 발자욱’ 역시 ‘눈물이 고이였었다’라는 시구, 곧 유년 시

절 화자가 느꼈을 슬픔과 연관된다. 이처럼 ‘하얀 냇’과 ‘붉은 발자욱’은 모두 애상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슬한 하늘에 뜬 연’, ‘바람에 깎박이는 연실’에 빗대어 ‘아슴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에서 ‘연실’의 긴장을 보며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은 3연에서 연실이 ‘끊어’져 울었던 상황과 연결되므로 정서의 고조를 유발한 것이다. ③ 3연에서는 ‘울다’를 반복하고 있고, 4연에서는 ‘눈물이 고이었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내 어린 날’이 힘들고 괴로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⑤ 2연에서 화자는 연을 보며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데, 1연과 4연에서는 그 시절에 대한 인상과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 ‘아실아실’은 위태로움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드러내는 말로, 너무 높이 떠 오른 연이 끊어지지 않는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산속 마을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음을 함축하고 있다. ② ㉠은 처마 기에 나래를 묻는 새가 내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④ ㉠은 흰 빛깔이 보일 듯 말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끊어진 연줄을 보며 서러워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은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말로, 외롭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51.5% 2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신위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자기 집을 이름을 ‘문의’라고 하였고, ‘나’도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는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두 상황 모두 결국 물 가운데 사는 것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위는 자신이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하의 지도’를 보고 자신이 물 가운데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③ ‘나’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도 ‘물에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나’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사람들이 ‘산에 산다’고 하지 않고 ‘물에 산다’고 하

는 예를 들어, 신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⑤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물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나 신위가 물을 보지 못하므로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 두 경우를 의미하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과 ‘천 리를 간 것’이 ‘매한가지라 할 것’이라 인식한 것이다.

65.2%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물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나’는 이를 통해 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다를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물에 사는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노인이 무료를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 노인이 먹는 음식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의 ‘천하의 지도’에 그려진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물에 둘러싸인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이루지만,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모두 ‘작은 나라’의 모습을 비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두 소재는 대립이 아니라 유사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정철, '성산별곡'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가) 정철, '성산별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정철이 벼슬길에 나서기 전 전라남도 담양의 성산에 있는 서하당과 식영정 주변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그 주인에 해당되는 김성원 등의 은거와 풍류 생활을 예찬한 가사 작품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성산 주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 자신으로 추정되는 손님과 김성원으로 추정되는 주인의 문답 형식을 빌려 성산의 외적인 생활 환경과 내적인 정신세계를 그려냈다.

[주제] 성산에 문혀 사는 삶의 흥취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꿩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는 일상적 삶의 즐거움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생매를 풀어 꿩을 사냥하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생동감 넘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화자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사는 자신을 산중호걸이라 표현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꿩 사냥과 물고기잡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초장에서 '활활 살살'은 말을 솔질하는 종의 행위를, '팡팡쌩쌩'은 말뚝 박는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으며, 중장에서 '주섬주섬', '와지끈 똑딱', '주루룩', '너슬너슬' 등은 물고기를 잡는 화자의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정경의 변화를 묘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에서는 두 개의 개별적 공간에서의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간 이동의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생매를 이용하여 꿩 사냥을 한 후 여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현과 호걸은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의 중장에서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와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고기들을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51.3% 3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어찌한 시인이 흥망이 있었는고 /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가 심한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담담한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을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산에 눈이 덮인 것은 ‘삭풍’이 불어 공산에 쌓인 가을 잎을 쓸고 간 이후이므로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가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경요굴’은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로, 화자는 경요굴 숨은 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성산의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성산의 경치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만고 인물’을 거슬러 생각하며 시인의 흥망에 애달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산중에 벗이 없’는 적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기산의 늙은 고블’은 기산에 은거한 전설적인 인물인 허유를 가리키는 말로, 허유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지조가 가장 높다’는 말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6%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소재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생매’는 꿩 사냥에 동원된 새인 ‘매’를 가리키므로 이를 고고한 취향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학’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고기’는 앞내 여울과 뒷내 여울을 오르내리는 물고기로 화자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움버들 가지에 꿰어 놓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소선’과 ‘적선’은 각각 소동파와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로 청정한 강호의 세계인 성산에서 떠올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학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아오거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 달라 말하고 있다. 화자는 뒷내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므로 ‘선관’은 화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풍류를 즐기려 하는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의 ‘산옹’은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인 김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나)의 ‘나’는 초장에서는 매를 이용하여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중장에서는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세상사는 구름처럼 험하다고 탄식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동자에게 학을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으면 술을 가져 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술병’은 물고기를 잡는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로 볼 수 있다.

: '||'

가

고

21.6: 5 3 4 1 3 2 || 4 5 2

21.9: 2 4 5 3 || 4 2 2

21. : 3 3 2 4 1 4

22.6: 5 2 2 1 1 2 || 3 1 3 5 || 2 4 1

22.9: 5 4 3 3 || 4 3 2

23.6: 5 4 1 3 4 || 5 3 4 2 || 4 2 5 3

23.9: 5 2 3 3 || 2 4 4 3 2 4 || 2 4 1